ISSUE BRIEFING

2026 ISSUE BRIEFING Vol.349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 농생명 혁신체계의 마지막 연결고리

연구책임 배균기 책임연구위원

연 구 진 김시백 선임연구위원

JTHINK

jthink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요약

국가 농정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집적화 필요

-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균형발전 수단이 아니라 지역의 전략산업과 이전기관의 핵심 기능을 결합하여 자립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농협중앙회는 전북에 가장 필요한 앵커기관으로 평가됨
- 세계 주요국은 농생명 연구·생산·유통·금융 기능을 단일 권역에 집중하는 클러스터형 혁신 전략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 이전은 국가 농정의 실행력을 높이는 구조적 전환 기회로 접근해야 함

왜 전북인가, 농생명산업 중심지이자 국가 농정의 실행거점

- 농촌진흥청·한국식품연구원·한국농업기술진흥원·국가식품클러스터·국민연금공단 등 농생명 연구·산업·금융 인프라가 집적된 전국 유일 지역으로 관련 산업의 완성형 생태계 구축을 위한 최적지로 평가됨
- 농협중앙회가 보유한 전국 농·축협과 농업인 조직망이 전북의 농생명 인프라와 결합할 경우 연구성과의 국가 농업기술 확산, 생산부터 가공·상품화, 물류·수출, 금융·투자 등 가치사슬 연결 체계 고도화 가능

농협중앙회 유치를 통한 농생명산업 고도화 플랫폼 구축

- (연구성과 현장 확산 원스톱 플랫폼) 농촌진흥청·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성과를 농협의 전국 조직망과 연결하여 기술-생산-유통의 선순환 실증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 현장의 혁신이 소득으로 연결되는 구조 완성
  - 연구기관 중심의 기술개발과 개별 시범사업에서 벗어나 연구개발-현장실증-전국보급-시장확산으로 이어지는 국가 농업혁신 전달체계를 완성하고, 농생명 R&D 투자의 실효성을 제고
- (K-푸드 수출 플랫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가공·제조 역량, 농협의 유통·물류 인프라, 새만금 신항만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농식품 원재료 수급부터 해외 수출까지 일괄 처리하는 K-푸드 수출 전진기지 구축
  - 지역 농·축협과 생산자조직이 계약재배를 통해 원재료를 공급하고, 농협경제지주가 품질관리와 수매·물류를 담당해 안정적인 원료조달체계를 구축하며, 한국식품연구원·국가식품클러스터는 고부가 제품과 수출전략상품 개발, 농협 유통채널을 통한 시장성 검증 체계 마련
- (농생명 금융플랫폼) 농협금융지주와 국민연금공단의 자산운용 역량을 결합하여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분야의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농생명 특화 금융생태계 구축
  - 전북 농생명기업에 창업-사업화-성장-자본시장 진입으로 이어지는 금융 성장사다리를 제공하고, 농협금융을 농업인 대상 금융에서 농생명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산업육성형 금융으로 고도화 추진

농협중앙회 유치를 전북 농생명산업의 도약 계기로 활용

- 농협중앙회 전북 유치는 연구개발→현장확산→생산→가공·유통→수출→금융·재투자로 이어지는 농생명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임
- 농협중앙회 본부의 정책·조정 기능, 농협경제지주의 생산·유통·수출 기능, 농협금융의 투자·기업금융 기능을 전북의 농생명산업 가치사슬에 맞추어 집적하는 종합적인 유치 전략이 중요한 시점
- 농협과 선도 협력사업 추진 및 상시 협력체계 구축, 지역 농·축협과 농업인의 공감대 형성, 법·제도 대응 역량 강화, 이전 입지와 직원 정주여건 준비 등을 통해 전북의 유치 경쟁력을 강화

Ⅰ. 국가 농정 전환과 농협중앙회 이전 필요성

2차 공공기관 이전, 기관 분산에서 지역산업 고도화로

-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으로 추진되어 전국 10개 혁신도시 조성과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음
- 그러나 기관이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곧바로 활성화된 것은 아니었으며, 국토연구원(2022)은 지역 내 산업 생태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경우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음
- 본사 기능이나 핵심적인 의사결정 기능이 수도권에 남아 있거나 지역의 산업·연구·금융 등 기반과 단절되어 운영되는 경우 혁신도시는 목적과 다르게 공공기관 직원들의 베드타운으로 머물게 될 것임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25)에서 기관 이전과 지역전략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 자립형 혁신 생태계 구축을 균형발전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였음
- 이는 2차 이전이 단순한 기관들의 분산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 특성과 기반을 연계해 자체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앵커 기관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함
- 농협중앙회는 농업인과 지역 농·축협을 기반으로 농축산물의 생산·유통, 농업금융, 농촌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중추기관으로 농생명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북자치도에 가장 필요한 핵심 앵커기관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농협중앙회의 유치는 단순한 기관의 물리적 이전을 넘어 1차 이전을 통해 조성된 전북혁신도시의 농생명 연구기능을 유통·금융·산업화 기능으로 확장하여 혁신도시의 성과를 고도화하는 2차 이전의 대표 모델이 될 수 있음

글로벌 농생명산업 전략의 패러다임은 '분산'이 아닌 '집중'

-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 강화, 바이오경제 부상이라는 메가트렌드 속에서 선진국들은 농생명분야 연구, 생산, 가공, 유통, 금융 기능을 특정 지역에 집적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관련 산업의 집적이 기술 혁신, 인재 유입, 투자 집중, 규모의 경제를 동시에 창출한다는 것은 실리콘밸리 모델 이후 산업정책의 공인된 원칙으로 자리잡음(Porter, 1998)
  - 네덜란드 푸드밸리(Food Valley)는 세계 최고의 농업연구대학인 바헤닝언대학을 중심으로 글로벌 식품·농생명 기업, 스타트업, 연구기관이 반경 30km 이내에 집적되어 연간 식품 수출 1,000억 유로를 초과하는 세계 2위 농식품 수출국 위상을 확보
  - 덴마크 코펜하겐 메디콘밸리는 농축산·바이오·의약이 하나의 클러스터에 통합되어 세계적 기업을 육성하고, 국가 GDP의 약 10%를 바이오경제가 담당하는 성과를 달성
  - 미국 아이오와주는 농업대학, 농업 R&D 기관, 주요 식품기업 본사가 집중 배치된 국내 최대의 집적지로서 농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기능
  - 일본 농림수산성은 푸드테크 전략(2022)을 수립하고, 기반 연구기관과 산업자원을 집중시키는 클러스터 정책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
- 전북자치도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전주·완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국립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이 집적하였으며, 익산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자리잡아 국내 농생명 R&D 중심지로 성장하였음
  - 농생명 연구·진흥을 담당하는 이들 기관의 연간 연구개발 예산은 1조 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국내 농생명 R&D 중심지로 부상(농촌진흥청, 2026)

- 그러나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이 지역농업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나아가 전국 농업인과 농식품기업으로 확산되기 위해 필요한 실증·보급·유통·금융 기능은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연구를 통해 우수한 종자와 영농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전국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유통하여 소비자에게 연결하며, 그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은 여전히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생산과 유통, 산업화와 금융 간 단절은 국가 농생명 R&D 투자의 성과가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농협중앙회는 전국의 지역 농·축협과 농업인 조직을 기반으로 연구성과를 농업현장에 전달하고, 영농자재 공급과 교육·컨설팅·금융지원, 농축산물 판매를 연계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전국 단위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음
- 따라서 농촌진흥청 등 국가 농생명 연구기관과 농협중앙회의 조직·유통·금융 기능이 물리적·기능적으로 결합될 경우, 연구개발 성과가 현장 실증과 전국 보급, 생산·가공·유통·수출로 이어지는 국가 농업혁신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농촌소멸과 지역 농·축협의 지속가능성 확보

-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청년층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농업인력 부족뿐만 아니라 교통·의료·복지·금융·생활서비스 공급 기반이 약화되는 복합적인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특히 인구감소와 조합원 고령화는 지역 농·축협의 경영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경제사업의 수익성 저하와 금융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지역 농·축협이 농업인과 농촌지역에 제공해 온 다양한 서비스의 지속가능성도 위협받고 있음
- 지역 농·축협은 단순한 금융기관이나 농산물 판매조직이 아니라 농업인에 대한 영농지원, 농자재 공급, 농산물 판로 확보, 농촌복지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핵심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는 회원 농·축협에 대한 지도·지원, 상호금융의 건전성 관리, 농업인 교육과 복지사업, 도농교류와 농촌활성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농촌소멸에 대응하는 현장밀착형 정책을 기획·확산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농업·농촌의 주요 현안이 비수도권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반면 농협중앙회의 핵심 의사결정 기능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농촌 현장과의 물리적·기능적 거리를 줄이고 지역 농·축협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농촌지역과 농생명 연구기관이 집적된 전북으로 농협중앙회가 이전하면 지역 농·축협과 농업인의 수요를 정책사업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고, 청년농 육성, 농촌일자리 창출, 농촌복지와 생활서비스 확충을 위한 현장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전북에서 검증된 농업기술 확산, 농촌서비스, 지역 농·축협 혁신모델을 농협의 전국 조직망을 통해 다른 농촌지역으로 보급함으로써 농촌소멸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표준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함
- 금융 측면에서도 농협은행을 비롯한 농협금융 계열사의 대출·투자·보험 기능을 농업 R&D와 경제사업에 결합함으로써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분야의 창업·성장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농협중앙회의 전북 유치는 단순히 본부와 인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차원을 넘어 농협을 농업인과 농촌 현장 가까이 재배치하고, 국가 농생명 R&D와 농협 계통조직을 연결하여 농업인의 소득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국가 농정체계의 구조적 전환으로 의미를 가짐

Ⅱ. 국가 농정 실행거점, 왜 전북인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을 대표하는 연구·진흥의 중심지

- 전북특별자치도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농생명 기초연구부터 응용연구,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등 전 단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공공 연구기반을 구축하였음
- 전주·완주 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등 농업 분야별 전문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음
  - 국립농업과학원은 토양·농자재·농업환경·농업공학·농촌자원 등 농업의 기반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국립식량과학원은 벼·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품종과 재배기술 개발을 담당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채소·과수·화훼·버섯·약용작물 등 고부가가치 원예·특용작물 연구를 수행하고,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의 육종·사양·유전체·축산환경·동물복지 등 축산업 전반의 기술개발을 담당
- 한국식품연구원은 식품가공, 기능성 식품, 식품안전과 저장·유통기술을 연구하여 농생명 연구성과를 식품산업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익산에 위치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업 연구성과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농식품 창업기업 육성, 농업기술 실용화를 전담하여 연구기관의 성과를 기업과 농업현장으로 확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이러한 연구·진흥기관의 집적은 전북이 단순한 농업 생산지역이 아니라 국가 농생명 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음
- 특히 농협중앙회가 보유한 전국 농·축협과 농업인 조직망이 전북의 농생명 연구기관과 결합할 경우,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과 신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하고 신속하게 보급하는 국가 농업기술 확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농생명 기술사업화와 식품산업화 기반 구축

- 전북자치도는 농생명 연구성과를 농업 생산과 식품 제조, 창업과 기업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산업화 기반을 함께 보유하고 있음
-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내 유일의 식품산업 전문 국가산업단지로 '26년 기준 189개 기업(산업단지 127, 식품벤처센터 40, 청년창업센터 22)이 입주하였으며, 식품 기술개발부터 시제품 생산, 상품화와 수출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음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패키징센터·파일럿플랜트·기능성식품제형센터 등 12개 기업지원시설을 통해 기업의 연구·생산·수출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춤
- 한국식품연구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농생명 연구성과를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전환하는 기반이 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까지 연계하여 연구–기술이전–제품개발–생산으로 이어지는 산업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가 이러한 기반과 연계할 경우 농생명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농협의 경제사업을 통해 시장으로 연결할 수 있음
  - 농협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활용하여 식품기업에 필요한 국산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계약재배를 확대
  - 농협 하나로마트, 농협몰, 공판장 등 유통망을 활용하여 신제품의 시장성을 검증하고 국내 판매채널을 확보
  - 농협의 산지유통·가공 계열사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간 공동상품 개발 및 생산·유통 협력 확대

- 전북자치도는 농생명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종자, 스마트농업, 식품가공, 창업지원 기반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을 연구성과의 산업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로 연결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

새만금은 농생명·물류·수출의 미래 먹거리 창출 공간

- 서해안에 위치한 새만금은 291㎢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간척지로 농생명·식품, 스마트농업, 재생에너지, 수출·물류 분야의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음
- 새만금 산업·연구용지에 스마트 농생명 단지, 식품·바이오 클러스터, 국제물류 거점 등이 계획되어 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이 진행 중임
- 새만금 신항만은 전북 농산물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가공식품을 해외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물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농협의 국내외 유통망과 결합할 경우 K-푸드 수출 전진기지 구축이 가능함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25)은 새만금을 첨단산업과 농생명·에너지 산업의 융복합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을 명시하였으며, 새만금을 활용한 전북과 국가의 농생명산업 확장 전략이 기민하게 추진되고 있음
-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가 전북에 위치할 경우 산지 농산물의 생산과 수집,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가공·상품화, 새만금의 물류·수출 기능을 하나의 가치사슬로 연결할 수 있음
  - 지역 농·축협과 생산자조직을 통한 수출용 원료 농산물의 계약재배와 품질관리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과 농협 계열사의 공동 수출상품 개발
  - 농협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일본·중국·동남아 등 전략시장 개척
  - 할랄·유기농·저탄소 인증과 연계한 중동·유럽 등 신규시장 진출
  - 새만금 신항만을 활용한 농식품 공동물류 및 수출지원체계 구축
- 새만금은 농협 경제사업을 국내 농산물의 생산·유통 지원에서 첨단농업 실증, 식품산업 육성, 글로벌 수출로 확대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농협중앙회의 전북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음

국내 유일의 농생명 금융·투자 연결이 가능한 지역

- 농생명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연구와 생산, 가공·유통 기능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사업화, 농식품기업의 설비투자,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금융·투자 기능이 함께 구축되어야 함
-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전북 금융산업 육성의 핵심 기반으로, 국내외 자산운용사와 금융기관, 전문인력이 집적되는 금융생태계 조성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농협금융은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벤처투자 등 은행·증권·보험·벤처투자를 포괄하는 금융계열사를 통해 농업인과 농식품기업에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의 농생명 특화기능이 전북에 배치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금융생태계와 농촌진흥청·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의 기술발굴 역량을 연결하여 농생명산업 전문 투자금융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
-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종자, 동물용의약품, 농업로봇, 탄소저감농업 등 전북이 육성하는 농생명 신산업은 연구개발 이후 실증과 사업화, 생산설비 확충에 장기간의 자금이 필요하므로 대출 중심의 기존 농업금융을 투자·보증·자본시장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협금융 계열사의 기능을 연계하면 농생명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창업투자, 시설·운전자금 대출, 성장투자, 기업공개와 회사채 발행, 보험과 위험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금융 성장사다리를 구축할 수 있음
  - NH벤처투자를 통한 농생명 스타트업과 초기기업 발굴·투자
  - NH농협은행을 통한 농식품기업의 시설·운전자금 및 스마트농업 프로젝트금융
  - NH투자증권을 통한 성장기업의 자본조달, 기업공개와 인수·합병 지원
  - NH농협생명·NH농협손해보험을 활용한 농업재해와 경영위험 관리
  - 새만금 스마트농업·탄소중립 식품산업과 연계한 ESG·녹색금융 확대
- 농협중앙회의 전북 이전은 농업인 대상 금융에 머물러 있던 농업금융을 농생명기업과 산업 인프라의 성장을 지원하는 산업육성형 금융으로 고도화하고, 전북을 농생명 투자금융의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연구-산업화-수출-금융을 연결하는 차별적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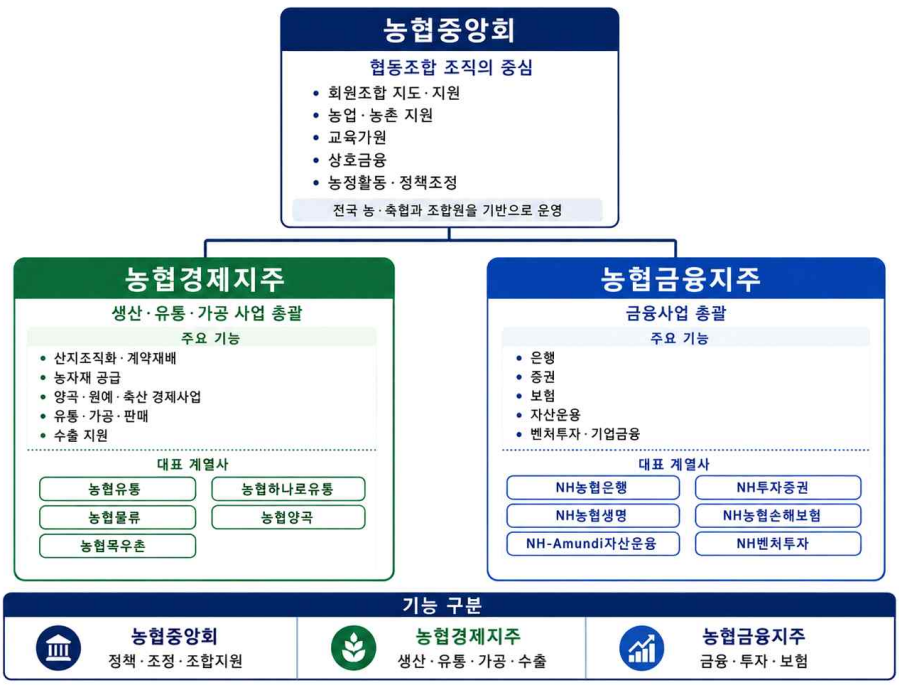
- 농협중앙회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 경쟁에서 전북의 강점은 농업 생산량이나 농촌지역의 비중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농협의 기능을 국가 농생명산업 발전에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함
- 전북자치도는 농촌진흥청과 국립과학원 중심의 연구개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기술사업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한국식품연구원의 식품산업화, 민간육종연구단지와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실증·생산 기반을 함께 보유하고 있음
- 여기에 새만금의 대규모 농생명용지와 수출·물류 확장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금융 기반이 결합되어 농생명산업 가치사슬 전반을 하나의 지역에서 연계할 수 있음
- 다른 농업지역도 우수한 생산기반과 농식품산업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가 농생명 연구기관과 기술사업화·식품산업·스마트농업·수출·금융 기능이 동시에 집적된 점은 전북의 차별적인 경쟁력임
- 농협중앙회는 농업·농촌 지원과 회원조합 지도, 농협경제지주는 생산·유통·가공·수출, 농협금융은 대출·투자·보험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전북에 집적된 농생명 기반과 기능적으로 높은 연계성을 가짐
- 특히 농촌진흥청의 연구성과를 농협의 전국 계통조직을 통해 확산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상품화한 농식품을 농협 유통망과 새만금 물류 기반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며, 그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농협금융이 지원하는 완결형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음
- 따라서 전북은 단순히 농업 생산이 많은 지역이 아니라 국가 농생명 연구성과를 기술사업화-생산-가공-유통-수출-금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관 활용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농협중앙회의 전북 이전은 새로운 기반을 처음부터 조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1차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사업을 통해 이미 구축된 연구·산업·금융 기반에 농협의 조직·유통·금융 기능을 보완하여 국가 농생명산업 생태계를 완성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음

Ⅲ. 농협중앙회 및 산하기관의 기능과 중점 유치 대상

1. 농협중앙회 및 산하기관의 구조

- 농협은 농업인과 지역 농·축협을 기반으로 농업·농촌 지원, 농축산물 생산·유통, 상호금융과 종합금융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조직으로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관련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음
  - 농협중앙회는 전국 지역 농·축협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조직으로 회원조합 지도·지원, 농업·농촌 지원, 교육지원, 농정활동, 상호금융 등 협동조합의 고유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농협경제지주는 농축산물의 생산지원과 산지조직화, 농자재 공급, 가공·유통·판매·수출 등 농협 경제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농협금융지주는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벤처투자 등을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농협중앙회 및 산하기관 구조〉



-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금융지주는 기능적으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나 법인과 사업영역이 구분되어 있어 농협중앙회 본부의 이전이 지주와 계열사 전체의 이전으로 자동 연결되는 구조는 아님
- 따라서 전북자치도의 유치전략은 농협중앙회라는 기관 명칭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중앙회 본부의 핵심 의사결정 기능을 중심으로 농협경제지주의 산업화 기능과 농협금융의 농생명 특화기능을 선별적으로 동반 유치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전북자치도는 농촌진흥청과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연구·기술사업화 기반이 집적되어 있는 반면, 연구성과를 전국 농업현장과 시장으로 확산하는 조직·유통·금융 기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농협중앙회의 정책·조정 기능과 경제지주의 시장화 기능, 금융지주의 자금공급 기능을 전북에 연계 배치할 경우 연구-실증-생산-가공-유통-수출-금융으로 이어지는 농생명산업의 완결형 생태계 구축이 가능함

2. 중점 유치대상 설정

농업·농촌 정책과 자원배분을 담당하는 본부 핵심기능 유치

- 농협중앙회는 전국 약 200만 명의 농업인 조합원과 지역 농·축협을 기반으로 농업인 지원, 회원조합 지도·지원, 상호금융, 농축산물 유통과 농촌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중추기관임
- 농협중앙회 유치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부서를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협의 주요 정책과 사업, 조직과 예산을 결정하는 본부 핵심기능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함
  - 농업·농촌 지원정책과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기획·조정 기능
  - 지역 농·축협에 대한 지도·지원과 사업조정 기능
  - 농업인 교육, 복지, 도농교류와 농촌활성화 기능
  - 상호금융의 농업·농촌 특화사업과 지역 농·축협 지원기능
  - 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와의 사업을 조정하는 계열조정 기능
- 농협중앙회의 핵심 의사결정 기능이 전북으로 이전하면 농업·농촌 현장의 수요와 국가 농생명 연구기관의 성과를 농협의 주요 사업과 자원배분 과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음
- 특히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과 농협중앙회가 상시적으로 협력할 경우 신품종과 스마트농업 기술, 기후변화 대응기술 등의 개발단계부터 현장 실증과 보급방안을 함께 설계할 수 있음
- 지역 농·축협은 기술과 사업을 농업현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농협중앙회는 전국 단위로 사업을 조정·확산함으로써 연구개발–현장실증–전국보급으로 이어지는 국가 농업혁신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또한 농업인과 지역 농·축협의 현장 의견을 중앙회의 정책기획과 사업계획에 신속하게 반영하여 농산물 수급, 농촌 인력 부족, 조합원 고령화, 농촌서비스 약화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음
- 따라서 농협중앙회 전북 유치는 기관의 주소지를 옮기는 차원이 아니라 농협의 정책 의사결정 기능을 농업인과 농촌 현장, 국가 농생명 연구기반 가까이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연구성과를 유통·가공·수출로 연결하는 농협경제지주 기능 유치

- 농협중앙회의 전북 이전 효과가 농생명산업의 고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의 교육·지원 기능뿐만 아니라 농축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수출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의 핵심기능이 함께 배치될 필요가 있음
- 농협경제지주의 경제사업은 농자재 공급, 산지조직화, 계약재배, 농산물 수집과 저장, 가공·상품화, 도매·소비지 유통, 수출 등 농축산물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있음
- 전북자치도에 농협경제지주의 수급관리·산지유통·식품·양곡·원예·수출 관련 기능이 배치될 경우 농생명 연구성과와 농협의 경제사업을 연결하는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함
  - 농촌진흥청의 신품종과 재배기술을 활용한 지역 농·축협 중심의 계약재배 확대
  - 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화 기술을 농협의 농자재·유통망과 연계
  - 농촌진흥청의 작황·기상정보와 농협의 생산·출하·판매정보를 결합한 수급관리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국산 농산물 원료 공급과 공동상품 개발
  - 하나로마트, 농협몰, 공판장 등을 활용한 신제품의 시장성 검증과 판로 확보
  - 새만금 물류기반과 농협의 해외 네트워크를 연계한 농식품 수출 확대
- 따라서 농협경제지주의 동반 배치는 농협중앙회 유치가 행정·지원 기능의 이전에 그치지 않고 전북 농생명산업의 생산·가공·유통·수출 구조를 실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

농생명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농협금융 특화기능 유치

- 농업과 농생명산업의 성장에는 농업인에 대한 정책자금과 대출뿐만 아니라 농식품기업의 설비투자, 농생명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 스마트농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투자·증권·보험 기능이 필요함
- 농협금융은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벤처투자 등 은행·증권·보험·벤처투자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농업인과 농식품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농협금융 전체의 일괄적인 이전보다 전북의 농생명산업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투자·기업금융·농업위험관리 등의 특화기능을 전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농생명산업의 성장단계별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창업단계: NH벤처투자를 통한 농생명 스타트업 발굴과 초기투자
  - 사업화단계: NH농협은행의 기술사업화·시설·운전자금 지원
  - 성장단계: 농협은행과 농협금융 계열사의 대출·투자 연계
  - 도약단계: NH투자증권의 기업공개, 회사채 발행과 인수·합병 지원
  - 안정화단계: 농협생명·손해보험의 농업재해와 경영위험 관리
-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농협금융의 연계는 농생명기업, 운용사, 금융기관과 전문인력이 집적되는 투자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농협금융과 민간 운용사가 시장성과 수익성을 갖춘 농생명 펀드와 투자 프로젝트를 조성하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독립적인 투자심사를 거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농생명산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음
- 따라서 농협금융의 농생명 특화기능 배치는 농업인 대출 중심의 전통적인 농업금융을 기업투자·자본시장·프로젝트 금융까지 포괄하는 산업육성형 금융으로 전환하는 기반이 될 것임

기술·정보·물류·수출 관련 계열사

- 농협정보시스템, NH농우바이오, 농협물류, 농협양곡, NH농협무역 등은 중앙회와 지주의 핵심기능을 보완하고 전북 농생명산업의 디지털 전환, 종자산업, 물류·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연계 유치대상임
- 계열사 전체 본사의 일괄 이전보다 전북의 산업기반과 직접 연계되는 연구개발, 사업기획, 물류·수출, 데이터 관리 등 핵심 사업기능을 우선 배치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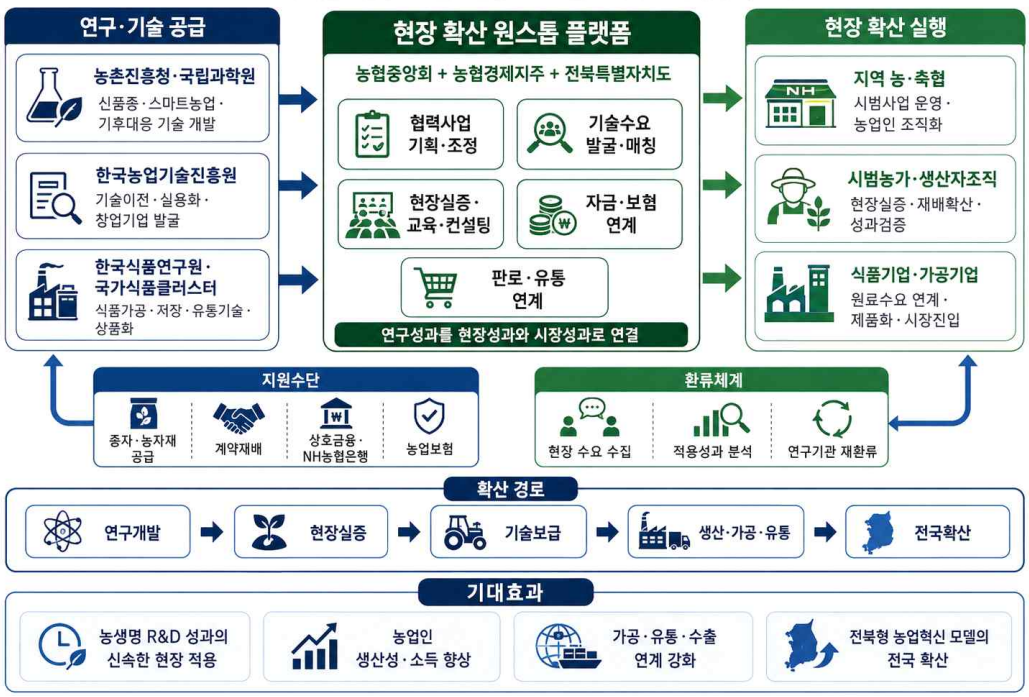
〈농협중앙회 핵심 유치 기능군〉

Ⅳ. 농협중앙회 유치와 연계한 농생명산업 고도화 전략

1. 전략 1: 농생명 연구성과 현장 확산 원스톱 플랫폼 구축

- 전북자치도는 농촌진흥청과 국립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농생명 연구·진흥기관이 집적되어 있으나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과 신기술이 농업현장과 식품기업에 신속하게 적용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농협중앙회 유치를 계기로 농생명 연구기관과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지역 농·축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생명 R&D 성과 현장 확산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
- 농촌진흥청과 국립과학원은 신품종·스마트농업·기후변화 대응기술 등 연구성과를 제공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기술실용화와 사업화를 지원하며, 농협은 전국의 지역 농·축협과 생산자조직을 통해 현장 실증과 보급을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되어야 함
  - 농촌진흥청·국립과학원 : 신품종과 농업기술 개발, 실증기준 및 표준모델 마련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농생명 창업기업 발굴
  - 농협중앙회 : 기관 간 협력사업 기획·조정과 전국 단위 확산
  - 농협경제지주 : 종자·농자재 공급, 계약재배, 생산·유통체계 연계
  - 지역 농·축협 : 시범농가와 생산자조직 구성, 현장 실증과 농업인 교육
- 이를 통해 연구기관 중심의 기술개발과 개별 시범사업에서 벗어나 연구개발–현장실증–전국보급–시장확산으로 이어지는 국가 농업혁신 전달체계를 완성하고 농생명 R&D 투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농생명 연구성과 현장 확산 원스톱 플랫폼 체계〉



2. 전략 2: 국가식품클러스터-농협 K-푸드 수출 플랫폼 구축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 품질·안전성 평가, 생산·수출 지원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국산 원료 조달과 국내외 유통망 확보를 위해서는 농협과의 연계가 필요함
- 농협중앙회 유치를 계기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농협경제지주, 지역 농·축협, 농협의 유통·물류·무역 계열사가 참여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농협 K-푸드 수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
- 지역 농·축협과 생산자조직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필요한 원료 농산물을 계약재배 방식으로 공급하고, 농협경제지주가 품질관리와 수매·물류를 담당하여 안정적인 국산 원료조달체계를 마련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연구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과 수출전략상품을 개발하고 농협의 유통채널을 통해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음
  -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협몰을 활용한 신제품 테스트와 초기 판로 제공
  - 지역 농·축협 및 농협 계열사와 입주기업 간 공동상품 개발
  - 농협 브랜드와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 브랜드를 연계한 공동마케팅
  - 소비자 반응과 판매정보를 제품개선에 활용하는 시장환류체계 구축
- 또한 새만금 신항만과 배후물류단지를 활용하여 전북 농산물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생산제품을 통합 집하·보관·수출하는 스마트 농식품 물류거점을 조성하고, 농협물류와 NH농협무역 등 물류·수출 계열사의 기능을 활용하여 공동보관·포장·통관·수출을 지원하며, 중소 농식품기업이 개별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해외 유통망과 바이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단순한 식품기업 생산단지에서 농업인-지역 농·축협-식품기업-농협 유통망이 연결되는 K-푸드 산업화·수출 거점으로의 고도화가 가능함

〈농협 연계 K-푸드 수출 플랫폼 체계〉

3. 전략 3: 농생명 금융플랫폼 구축

- 농생명산업은 연구개발 이후 장기간의 실증과 인허가, 생산설비 구축과 시장개척이 필요하지만 지역의 농생명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성장단계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존 농업금융은 농업인 대출과 정책자금 지원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어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출·투자·보증·보험·자본시장을 연계한 산업육성형 금융체계가 요구됨
- 농협중앙회 유치를 계기로 농협금융 계열사와 농생명 연구기관, 전북자치도, 대학·기업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생명 금융플랫폼'을 구축해야 함
-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은 우수기술과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농협금융은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자금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종자,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마이크로바이옴, 동물용의약품, 농업로봇, 탄소저감농업 등 전북 농생명 전략산업을 중점 투자대상으로 설정하고, 농생명기업의 기술성과 시장성, 농협 유통망과의 연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매출과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함으로써 전북 농생명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
- 농협금융과 민간 운용사가 시장수익성을 갖춘 농생명 특화펀드를 조성하고,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는 개별 펀드와 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투자심사를 거쳐 참여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공공기관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음
- 이를 통해 전북 농생명기업에 창업-사업화-성장-자본시장 진입으로 이어지는 금융 성장사다리를 제공하고, 농협금융을 농업인 대상 금융에서 농생명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산업육성형 금융으로 고도화할 수 있을 것임

〈농협 연계 농생명 금융플랫폼 체계〉

Ⅴ. 정책 제언

농협중앙회 유치의 종합적 의미

- 농협중앙회 전북 유치는 단순한 본부와 인력의 물리적 이동을 넘어 농업·농촌의 현장성과 국가 농생명 연구개발, 농협의 조직·유통·금융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산업·정책적 의미를 가짐
- 국가 차원에서는 농생명 연구성과의 현장 확산과 농산물 수급관리, 식량안보와 K-푸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 차원에서는 농업인의 소득과 지역 농·축협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농협 차원에서는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고 미래농업과 농생명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보하며, 전북 차원에서는 기존 농생명 기반을 산업화·시장화·금융으로 확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 농생명 연구기반과 농협중앙회의 전국 조직망이 결합할 경우 전북에서 개발된 연구성과와 사업모델을 전국 농업·농촌으로 확산하는 국가 농업혁신 플랫폼 구축이 가능함
- 결과적으로 농협중앙회 전북 유치는 연구개발→현장확산→생산→가공·유통→수출→금융·재투자로 이어지는 농생명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고, 전북과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임

이전기관과 지역 농생명 인프라 활용 통합적인 협력 플랫폼 구축 필요

-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한계 중 하나는 이전 기관이 지역의 산업 생태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섬'처럼 고립되는 현상임(김태환 외, 2020)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차 이전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대학, 연구기관, 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상설 기구로서 기능을 활성화하는 전략이 요구됨
- 개별 기관의 이전 효과가 지역 전체의 산업 혁신으로 확산되는 승수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 R&D 및 기술 이전 활성화, 농생명 창업·스케일업 지원, 인력 교류 및 전문 인재 양성, 사업화 성과 공유 및 환류 등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농협중앙회 유치를 전북 농생명산업의 도약 계기로 활용해야

- 농협중앙회 전북 유치는 농업·농촌의 핵심기관을 유치하는 지역개발 과제를 넘어 농촌진흥청 중심의 연구기반을 산업화·시장화·금융으로 확장하는 전북 농생명산업의 구조전환 전략으로 추진해야 함
- 전북자치도는 농협중앙회 본부의 정책·조정 기능, 농협경제지주의 생산·유통·수출 기능, 농협금융의 투자·기업금융 기능을 전북 농생명산업 가치사슬에 맞추어 집적하는 종합적인 유치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협과의 선도 협력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지역 농·축협과 농업인의 공감대, 법·제도 대응역량, 이전입지와 직원 정주여건을 함께 준비함으로써 전북의 유치 경쟁력을 높여야 함
- 유치 이후에는 농협중앙회와 기존 이전기관, 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 국민연금공단의 기능을 연결하는 상설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구개발-현장확산-생산-가공·유통-수출-금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야 함
-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농협중앙회 유치를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국가 농생명 연구성과의 현장 확산, 농업인의 소득향상, 농촌소멸 대응과 미래 농생명산업 육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전략적 전환점으로 활용해야 함

참고 문헌

김시백. (2026).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한 9대 공제회 전북유치전략과 이전효과 제고방안. 이슈브리핑 334호. 전북연구원.

김태환·민성희·김은란·서연미. (2020). 혁신도시 15년의 성과 평가와 미래발전 전략. 국토정책 브리프 775호. 국토연구원.

농촌진흥청. (2026.1). 2026년도 예산 개요.

대통령실. (2025).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박용석. (2026).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1차 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프레시안(2026.06.17.).

백승민, 박민성, 정진영. (2025).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와 거점도시 정책 방향. 산업연구원.

새만금개발청. (2021.2). 새만금 기본계획.

이춘희. (2023). 100년 역사 유럽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의 힘…'기업의 자생 생태계'. 아시아경제 (2023.03.27.)

Porter, M.E. (1998). Clusters and the New Economics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https://foodvalley.nl/

https://www.wur.nl/

https://www.maff.go.jp/j/shokusan/sosyutu/foodtech.html

Vol. 349

ISSUE BRIEFING

JTHINK

jthink Jeonbuk State Institute

발행인 최 백 렬　　발행처 전북연구원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